

우주는 옳거나 그르지 않다, 경이로울 뿐이다

‘별밤의 산책자들’ 에른스트 페터 피셔 지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중략)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운동주 ‘별해는 밤’ 중에서>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보면 저 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득하게 빛나는 별들은 더러 마 음 현권을 아리게 했다.

별은 누구에게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운동주 시인도, 밤하늘의 별을 세며 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에게 별은 어머니와 시 그리고 조국을 상징한다. 별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그 별들의 기원은 무엇일까? 언제 생겨났으며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들의 호기심은 별 자체를 넘어 은하계로까지 펼쳐진다.

별과 우주 연구 역사를 조망한 책이 나왔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과학사 교수로 재직중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쓴 ‘별밤의 산책자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주의 신비를 개관한다.

이 경이로움의 역사 길잡이는 위대한 별 관찰자들이다. 저자는 그리스 자연철학자에서 21세기 천체물리학자까지 24명의 인물을 다룬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뉴턴과 칸트를 지나 아인슈타인과 허블, 현대의 스티븐 호킹에

까지 이른다. 이들은 단순히 천문학사를 나열하기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체득한 천문학의 발전 과정을 구체화한다. 책은 인물이 살았던 당대 사회상과 정신사적 맥락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운동일’의 존재를 확신했다. 하늘에서 관찰되는 행성들의 운동역학이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물론 당대 이러한 생각은 신에 대한 모욕으로 비쳐졌다.

뉴턴은 태초의 카오스에서 질서로의 전환이 “신의 위대한 연금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관성’은 행성 운동의 원인이 되며 모든 생물의 역동적 성장과 변화는 신으로부터 연유한다고 설명했다.(많은 역사가들은 뉴턴이 학술보다 연금술 저서를 많이 썼다는 사실을 질끄러워 한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와 경계와 테두리 없이 완결된 상태라면 시간도 할도 없다고 단언한다. 즉 창조주를 위한 공간 또한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처럼 책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천문학자들의 견해를 담는다. 이들은 서로의 관점과 깨달음을 달라도 우주연구를 인간적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들은 분명 천문학사에 길이 남을 선조인애는 틀림없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저자는 별에 대한 호기심부터 복잡한 과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넓은 스펙트럼 주제에 의미를 둔다. 그 어떤 학설이나 가설도 옳거나 그르다는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다. 어쩌면 우주는 그런 것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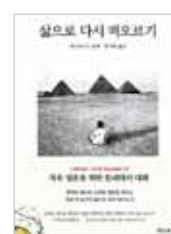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의 말을 들어보자.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 이 두 가지가 자주 그리고 곱곱이 생각해볼수록 더욱더 새롭고 큰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일마 1만7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냐! 더할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최신작이며 대표작 중 하나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원제 ‘A New Earth’)는 2008년 ‘NOW’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으나 번역자인 류시화가 자신의 번역에 문제를 느끼고 출판사에 양해를 구해 절판시키고 재번역을 통해 다시 출간했다.

류시화는 수차례 재번역 과정을 거치며 최선을 다했음을 밝히고 있다. 책은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일화와 철학적 내용을 통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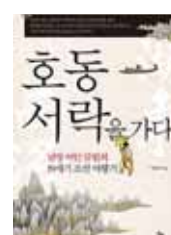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을 주제로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10주에 걸쳐 인터넷 온라인 독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유례 없는 이 실시간 토론에 전 세계 1100만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연금술사·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자유롭고 거침 없는 여인 금원의 조선 유람기

‘호동서락을 가다’

최선경 지음



“호수가 있는 4군에서 시작하여 관동 금강과 팔경을 돌아 한양에 이르렀고, 또 관서에 이르렀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으니, 이를 하여 ‘호동서락(湖東西洛記)’라 한다.”

여성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 후기에 남장을 하고 여행길에 나선 여인이 있다. 금원이라 불리는 이 여성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은 물론 중국 사신과 상인들이 왕래하는 의주에까지 다녀왔다. 이는 ‘호동서락을 가다’가 관북유람일기에 비견되는 까닭이다.

문화유산콘텐츠 공방 ‘보물찾기 여행’ 대표이자 ‘왕을 낳은 후궁들’의 저자 최선경이 펴낸 ‘호동서락을 가다’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여인 금원의 조선 유람기이다.

주인공 금원은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통달하고 시문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문재가 뛰어났다. 열네 살 때 여행을 떠나 금강산 등 명승지를 유람하고 돌아와 1850년에 기행문을 남겼다. 형식은 산문이 주를 이루고 중간중간 시 26편이 섞여 있다.

전설, 설화, 신화 등을 토대로 자신의 느낌을 적은 산문은 재기가 넘치고 전문적인 식견이 드러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금원이 열네살의 나이에 자신의 불안한 현실 앞에서 여행을 갈망했듯이 우리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면 일탈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금원을 통해 그 탈출은 회피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금원과 우리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옥당·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열네살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라

‘제이컵을 위하여’

윌리엄 랜데이 지음



2012년 미국 미스터리 스틸러 분야의 최고 화제작으로 꼽히는 장편 ‘제이컵을 위하여’가 출간됐다. 예일대와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출신 윌리엄 랜데이가 쓴 이 소설은 소년 범죄 이면에 드러난 사법제도와 가족제도를 낱낱이 해부한다.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에서 선 열네살 아들 제이컵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실 검사인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설 전면에 세부적인 법정 장면의 다양한 모습과 검사와 피고 사이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종일관 숨 가쁘게 전개된다. 출간 즉시 최고의 법정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결국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사법제도의 한계와 고난 앞에서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다.

(검은숲·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4할 타자는 왜 사라졌을까?

‘백인천 프로젝트’

정재승 외 지음



4할 타자 미스터리에 집단 지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K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재승 물리학자, 천관용 ‘시사IN’ 기자 등이 쓴 ‘백인천 프로젝트’는 유쾌한 야구학 실험에 대한 보고서다. 책의 탄생은 정재승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4할 타자는 왜 사라졌을까? 투수 기량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규정이 투수에게 유리해서?’가 계기가 되었다. 이 트윗은 트위터 네트워크 상의 수많은 야구 팬들, 잠재적 야구

학자들의 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100명 가까운 사람이 오프라인에 모였고 곧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백인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4할 타자가 사라진 것은 타자의 나태함이나 경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라는 ‘시스템의 진화적 안정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이언스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당신의 마음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소울 플레이스’

한창훈 외 지음



추리 소설가 김성중은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첫췌본이 실린 사진 잡지 ‘라이프’(1952년 9월1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판매용이 아니라는 점원의 말에 아쉬움을 안은 채 되돌아왔지만 헤밍웨이가 한 시절을 보냈던, 90년이 넘는 오래된 헌책방은 김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됐다. 바로 파리 생강변의 서점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공간, 마음의 안식처같은 장소가 있다. ‘소울 플레이스 내 영혼이 머무는 자리’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낸 책이다. 미술사학자 노성두가 독일 쾰른대학교 고고학과 건

물의 지향고를 소개하는 글은 유쾌하고 즐겁다. 소설가 한창훈의 귀신이 나오는 ‘그 집’, 남성 잡지 GQ 편집장 이종철의 ‘호텔’, 아나운서에서 여행작가로 변신한 손미나의 이 구아수 쪽포 ‘악마의 복구명’ 등 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여덟살 때 항상 오고 가던 서울의 연서로(카피라이터 윤수정),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플레타 공동묘지.(소설가 정인)를 비롯해 요리사 박찬일의 부엌, 소설가 백영옥의 헌책방, MBC 박소현 아나운서의 뉴욕 하이리언 등 13명의 ‘그곳’을 만날 수 있다.

(청어람미디어·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반기문과의 대화=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유력한 ‘아시아 정보통’으로 손꼽히는 전 ‘LA 타임스’ 논설실장 톰 플레이트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두 시간 씩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담집. 세계 정상들의 조직에서 코리아 스타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해 유례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엔이라는 조직과 사무총장이라는 직무의 한계도 고스란히 보여준다. (RHK·1만8000원)

▲1억으로 짓는 힐링 한옥=자연이 살아 숨쉬는 힐링 예코하우스 한옥, 황토와 마당, 국산 목재로 이루어진 친환경주택 한옥은 많은 이가 꿈꾸는 ‘드림하우스’다. 책은 누구나 한옥에 대한 향수를 안고 동경해 왔으나 가격의 압박으로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현실에서, 건축비 1/3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가능한 대중 신건축의 비밀을 알려준다. 실용성 높고 건강에 좋은 ‘힐링 한옥 짓기’의 효용과 공정을 소개하는 신개념 한옥 실용서다. (김은나무·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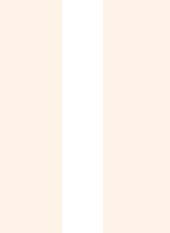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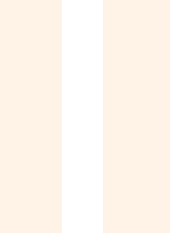
▲면세구역=한국 대표 SF 작가 두나의 재기 넘치고 흡인력 있는 이야기. 두나는 영화를 비롯해 소설, 만화,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루어졌던 아이 디어들을 독자적인 솜씨로 가공해 기묘한 이야기들로 재탄생시킨다. ‘면세구역’은 저자의 특기가 훌륭하게 발휘된 작품집으로 총 15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90년대 신촌 뒷골목에서 아득한 미래의 만나면 은하까지 거칠것 없이 질주한다. (복스토리·1만3000원)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하루가 멀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범죄자로 혹은 피해자로 만드는 것일까.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범행을 저지르게 한 범죄자의 심리구조와 범행 방법을 철저히 파헤쳐 보다 생동감있는 현장을 느끼게 한다. (지식의 숲·1만3800원)

▲인문학 카페 인생 강의=책의 핵심 키워드인 혁신, 성공, 정의, 창의, 소통, 자유, 행복, 종교, 건강이라는 주제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 상황이다. 우리 시대 직장인들의 주요 고민인 아홉가지 키워드에 대해 철학, 문학, 통합의학 등 각 분야별 9명의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분석하고 풀어냈다. 직장인들이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담출판사·1만2800원)

▲러던 특파원 칼 마르크스=경제학자, 철학자, 정치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왔고 또 평가 받아왔던 칼 마르크스는 실은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이 책은 칼 마르크스가 저널리스트로서 발표한 글들을 모았다. 마르크스의 기사들을 읽다보면, 세상 모든 일을 경제로만 접근하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적어도 언론에 발표된 글에서는 분석이 꽤 깊다는 인상을 받는다. (부글books·1만8000원)



▲어린이 흥덕터 띠옹~띠옹~ 119=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은 책이다. 대한소아응급연구회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엮었다. 집이나 학교, 휴양지, 가족 나들이 장소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예상해서 만든 100가지의 상황을 재미있는 민화와 함께 소개했다. (현문미디어·1만2000원)

▲악물 전쟁=악물이라는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의 인터넷 문화 문제점을 왕따 이야기와 연결시켜 사람을 대하는 예의에 대해 깊이있게 다룬 창작동화. 동화작가 이규희는 인터넷상에서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거짓말과 욕설로 상대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악물의 문제점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별숲·1만원)

▲범블야디의 생일 파티=‘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다이 생애 마지막 으로 내놓은 그림책. 작가가 무한정으로 탄생시킨 돼지 캐릭터 범블야디가 9살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생일파티를 연다는 이야기다.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귀여운 그림에 텍스트를 손수 써서 글자하면서 그림과 하나가 되는 연출을 이뤄냈다. (시공주니어·1만1500원)

▲도도가 우리 땅인 이유 33가지=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자존심 독도.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일본은 아이들 교과서까지 동원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며 거짓 교육을 시키고 있다. 참 어린이독서연구원은 책을 통해 독도는 어떤 섬이며, 왜 우리 땅인지, 그 확실한 근거를 33가지의 이유를 통해 알려준다. (세움·1만2000원)

▲만화보다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민화의 화가는 알 수 없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떨치고 있는 민화의 매력을 알아보는 지식교양 책이다. 민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도 담고 있다. 민화와 풍속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열다·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